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5. 4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민수기 · 마태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Contents

- 2 4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 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69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4

April 2015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전교인 전교구 교회 주변 전도	2 전교인	3 전교인 성금요일제2차 성찬식 성금요일 특별찬양 및 성찬회	4 전교인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3.30.~ 4.3.) →					
5 전교인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찬양예배 부활절 교구 통동원 주일	6 중직자	7 11교구	8 5교구	9 7교구	10 6교구	11 교역자
12 전교인	13 중직자	14 13교구	15 2교구	16 14교구	17 8교구	18 교역자
19 전교인	20 중직자	21 15교구	22 4교구	23 10교구	24 12교구	25 교역자
	← 2015년 동역 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 →					
26 전교인 제2차 학습·세례식 장애인주일	27 중직자	28 18교구	29 3교구	30 16교구		

교회 주요 일정

3월 30일~ 4월 3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 1일

전 교구 교회 주변 전도

4월 3일

성금요일(제3차 성찬식)

성금요일 특별찬양 및 성찬예배

4월 5일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찬양예배

부활절 교구 총동원 주일

4월 20일 ~ 22일

2015년 동역 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

4월 26일

제2차 학습·세례식

장애인지주일

4월, 개인 전도 계획

2015 May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te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 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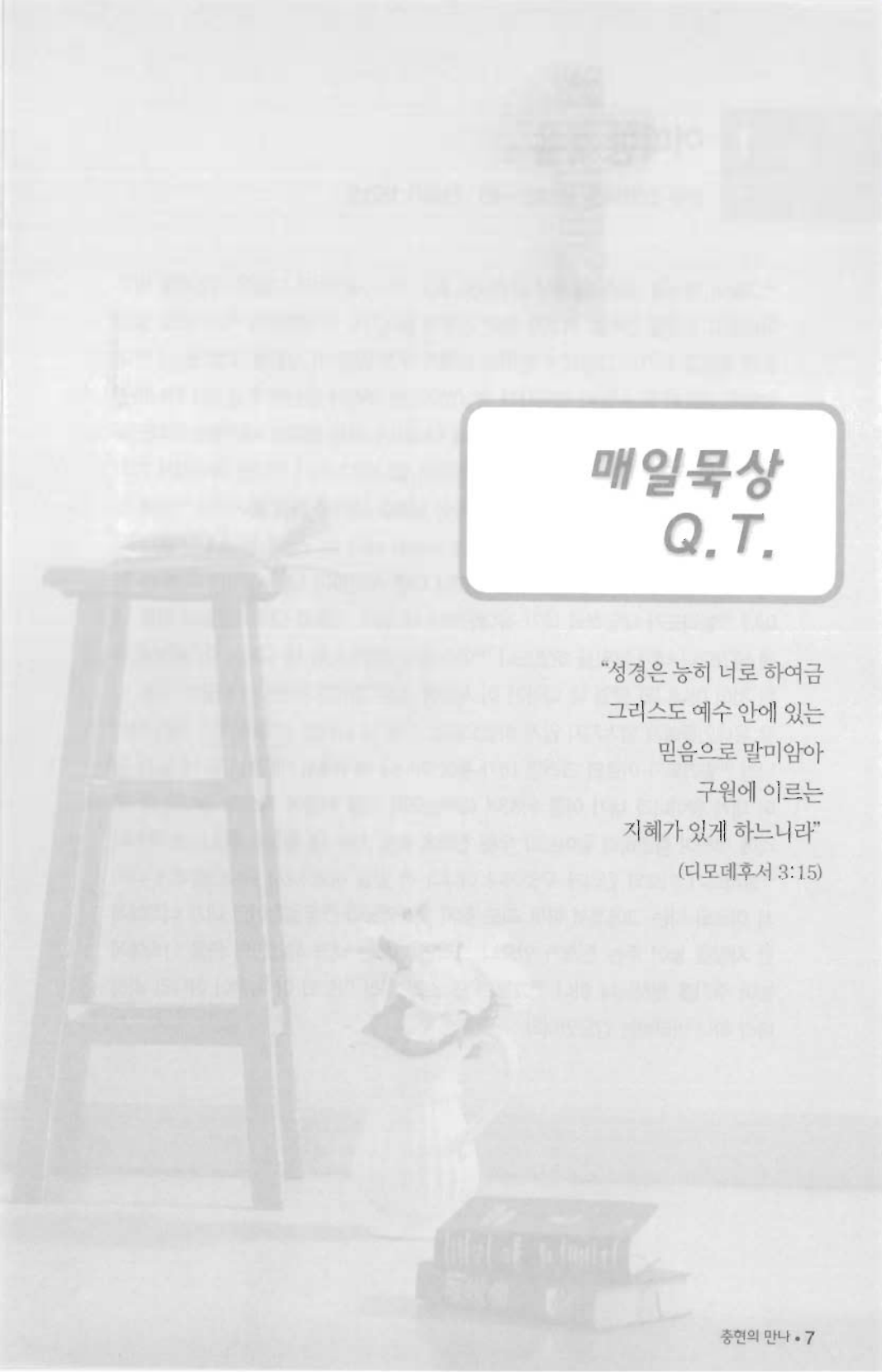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고난주간(3.30.~4.3.)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③ 김동하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⑤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⑥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⑦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⑧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 2015년 동역 교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4.20.~4.22.)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⑨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어내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⑩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²⁸ 그들이 예수를 가아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²⁹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³⁰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³¹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³² 이는 예수께서 자기 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³³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³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나 ³⁵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³⁶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³⁷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³⁸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³⁹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⁴⁰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28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를 묻자 그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했습니다(30절). 그들의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33~38절).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무리가 위협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끌려 다니고, 사람들의 거짓 고발에 대하여 어떤 대항도 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모든 일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상기시킵니다(32절). 주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이미 아시고, 이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32절 마 20:19 막 10:33 눅 18:32).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지 알지 못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묵상 질문

당신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적용 질문

죽기 전에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¹⁷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¹⁸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¹⁹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²⁰예수께서 못 박하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²¹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²²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²³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²⁴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²⁵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²⁶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니이다 하시고 ²⁷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까지 가셨습니다(17절). 그곳에서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23~24절).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고(18절), 십자가 위쪽에는 빌라도에 의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라고 기록된 패가 붙여졌습니다(19절).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 주님을 따랐던 여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25~26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26~27절).

요한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누구도 대신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물리적으로 잠시 지기는 했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마 16:24).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묵상 질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마 16:24)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적용 질문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April 3
금요일

다 이루었다

본문 요한복음 19:28~37 찬송가 148장

²⁸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²⁹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³⁰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 시니라 ³¹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³²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³³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³⁴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³⁵이를 본 자가 증언 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³⁶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³⁷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가) 시 69:21 나) 출 12:46 민 9:12 시 34:20 다) 욥 12:10

본문 해설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신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시기 위해 십포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죽으셨습니다(28~30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출 12:46 민 9:12). 유월절 양이 도살되는 시간에 참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 양처럼 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31~33절). 한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의도를 갖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그 속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34절).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에는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 한 점까지도 다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28~29절). 옆구리에 흘러나온 피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요일 1:7), 물은 성령과 영생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나타냅니다(요 4:14; 7:38~39).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다시 확실하게 보여주시며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일의 목격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면서, 자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5절).

묵상 질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적용 질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순종하고 따라야 할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April 4
토요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

본문 누가복음 23:50~56 찬송가 607장

⁵⁰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⁵¹(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⁵²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⁵³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⁵⁴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⁵⁵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⁵⁶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본문 해설

유대의 동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50~51절). 그는 공회 의원이었지만, 다른 공회원들의 악한 결의와 행사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51절).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인도받아 세마포에 싼 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두었습니다(52~53절).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셨고, 그분의 시체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사람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어찌면 제자들에게 그 무덤과 그의 시체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의 허무한 결말의 상징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꺾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무덤과 그분의 시체를 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과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과 그분의 시체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과 그분의 시체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

당신이 만일 예수님의 무덤과 그분의 시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밤에 어떤 꿈을 꿀 것 같습니까?

적용 질문

당신은 장차 당신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지기를 바랍니다까? 유언으로 어떤 내용을 남기고 싶습니다까?

April 5
주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본문 마태복음 28:1~10 찬송가 160장

“¹안식일이 다 지나고 ²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³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⁴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⁵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어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⁶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⁷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⁸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⁹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¹⁰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¹¹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 헬, 그 주간의

본문 해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1~3절).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4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달음질하였습니다(8절). 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11~15절).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근거이고 참 신앙의 전제이며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됩니다(고전 15:14).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고전 15:17~19).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은(히 12:2)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히 7:25).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께서 친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실제로 믿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체라면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본문 민수기 17:1~13 찬송가 3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㉑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둘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㉒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㉓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㉔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㉕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㉖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㉗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㉘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㉙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㉚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㉛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㉜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12족장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게 하셨는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각 지파의 이름이 아니라 각 족장 개인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택한 지파'에서 '택한 한 사람'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1~4절).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는 표적을 통해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임을 명백하게 입증하셨습니다(5~8절).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남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지니라"라고 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아론 개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계시가 아론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움이 돋고 열매가 열린 표징으로 나타내실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그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어 간직해 두라고 명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히 9:4 참고). 대제사장이란 직분이 그러하듯, 이는 아론이 예표하는 실체(實體)에 대한 표징으로서 훗날 성취될 더 큰 계시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 아론이 예표하고 있는 실체(實體)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제사장들은 비록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십자가의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April 7
화요일

여호와와 진노가 다시는

본문 민수기 18:1~7 찬송가 287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㉑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㉒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㉓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㉔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와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㉕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㉖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본문 해설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권과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린 사건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매우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만큼 그들의 직분에 따른 책임은 매우 컸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민 17:10). 민수기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민 17:12)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18장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5절). 즉 죽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1절). 본문의 첫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의 책임은 먼저 ‘성소에 대한 죄’였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직분이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표하는 실체(實體)에 대한 표징, 즉 훗날에 성취될 더 큰 계시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묵상 질문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아론도 죄 아래 놓인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적용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April 8
수요일

땅에 기업도 없겠고

본문 민수기 18:8~20 찬송가 586장

⁸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로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⁹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니 ¹⁰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¹¹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¹²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¹³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¹⁴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¹⁵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¹⁶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이니라 ¹⁷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¹⁸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흐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 아니라 ¹⁹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²⁰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본문 해설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는 “음식”이란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이는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8, 11, 19절).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주노라”라는 말씀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8절),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9절),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12절),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13절),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14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19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먹으라”라는 말씀도 자주 등장합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10절), “네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11, 13절). 이렇듯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직무에 대한 보상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제사장의 상급 중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제시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20절).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들에게는 몫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20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묵상 질문

시편 47~8과 16:5~6을 묵상해 보고 이 고백이 왜 나의 고백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적용 질문

만약 땅을 분배받는 것과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원하느냐 하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April 9
목요일

십일조의 십일조를

본문 민수기 18:21~32 찬송가 144장

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22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 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23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27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 리니 28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29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30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 의 소출 같이 되리니 31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32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본문 해설

가나안 정복 후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에게는 따로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24절). 레위인들은 죽임을 당했어야 할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었으므로(민 3:12), 이에 대한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자손에게 십일조를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에게도 그에 따른 책임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민 18:4)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로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8~20절과 이어진 내용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일조를 받았던 레위인에게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2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28절),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29절),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30절),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32절). 즉, 죽임을 당했어야 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진 그들 자신도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주님께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묵상 질문

여호와께서 “죽지 아니하리라”(32절)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믿음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본문 민수기 19:1~10 찬송가 266장

¹¹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¹²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¹³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¹⁴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¹⁵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¹⁶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¹⁷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¹⁸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¹⁹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돌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²⁰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본문 해설

본문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씻는 물을 만드는 율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붉은 송아지를 잡아서 태워 재를 만들어 두었다가 물에 타서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1~2절). 그리고 아직 멍에를 메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 목전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3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 13:12).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 일곱 번 뿌렸습니다(4절). 여기서 ‘그 피’는 제물이 ‘흘린 피’를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 제물이 흘린 피는 일곱 번 뿌려짐으로 ‘뿌린 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곱 번이란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14). 제물이 피를 흘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회막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뿌렸던 것입니다(벧전 3:18).

묵상 질문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 흠 없는 소가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적용 질문

인생이라는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 신자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¹¹⁾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¹²⁾그는 3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젖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¹³⁾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¹⁴⁾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¹⁵⁾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¹⁶⁾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¹⁷⁾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¹⁸⁾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¹⁹⁾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²⁰⁾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²¹⁾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²²⁾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 제삼일에 이 물로 정결하게 하면 제칠일에 정하려니와 제삼일에 스스로 정결하게 아니하면 제칠일에 정하지 못하여

본문 해설

본문에는 부정하게 되는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했고(11절), 사람이 죽은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했습니다(14절). 그리고 들에서 죽은 자의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이레 동안 부정했습니다(16절). 이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죽은 사람과 관련된 부정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17~18절).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도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은 이에 대해서 “여호와와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20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예법은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히브리서 9장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히 9:9~10). 즉 이 예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혁(改革)할 때까지의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

민음으로 씻음을 받고 거듭나는 진리란 무엇입니까?(요 13:8~10 벰전 1:23)

적용 질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거듭나지도 못하고, 죄 씻음 받을 길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¹¹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
 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매 거기에 장사되니라 ¹²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
 에게로 모여드니라 ¹³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
 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¹⁴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회
 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¹⁵너희가 어찌
 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¹⁶모세와 아론
 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¹⁷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¹⁸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
 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¹⁹모세가 그 명령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²⁰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
 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서 물을 내랴 하고 ²¹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²²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
 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
 하리라 하시니라 ²³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²⁴므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음 가데스에 도착한 지 약 38년만에야 다시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1절). 그런데 다시 모인 회중은 물이 없음으로 인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2~5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하셨고, 옷과 신이 해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온갖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건져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이 닥치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 모세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8절)하셨으나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내리쬘던 것입니다(11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12절). 모세는 이 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심각한 악영향에 주목하고 범죄하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와 무관한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며, 그가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합니다.

묵상 질문

모세와 아론은 한 번의 실수로 왜 그토록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적용 질문

분노의 감정을 쏟아 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들 때 어떻게 절제하고 해소합니까?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본문 민수기 20:14~29 찬송가 425장

⁽¹⁴⁾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¹⁵⁾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¹⁶⁾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토륨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¹⁷⁾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¹⁸⁾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¹⁹⁾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라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²⁰⁾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²¹⁾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²²⁾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 산에 이르렀더니 ⁽²³⁾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²⁴⁾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므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²⁵⁾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올라 ⁽²⁶⁾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²⁷⁾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 산에 오르니라 ⁽²⁸⁾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²⁹⁾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삼십 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본문 해설

모세는 요단 강 동편 고대 무역로인 '왕의 대로'를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으므로 모세는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 침략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며, 그 땅을 지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17절). 하지만 에돔 왕은 오히려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20절). 이에 이스라엘은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 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호르 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아론은 죽게 되었고, 그를 대신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26절).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의 죽음을 한 달 동안 애도했습니다(29절). 40년을 함께한 지도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큰 상실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더욱이 아론이 죽은 직접적인 원인이 백성의 원망에서 초래된 트리바 사건이었으므로, 그들이 느꼈을 죄책감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대신해 엘르아살을 세워서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와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쫓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빌 3:14).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크고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묵상 질문

이스라엘이 에돔 왕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참고 신 24~5)

적용 질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도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막힐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눅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본문 민수기 21:1~9 찬송가 287장

①네겟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②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③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④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⑤호르마라 하였더라 ⑥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⑦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⑧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⑨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⑩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⑪모세가 눅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눅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본문 해설

가나안 땅 남쪽 경계에 있던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 '아다림 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막기 위해 선제공격을 했고,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1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서원했습니다(2절). 그리고 그들은 서원한 대로 아랏 성읍을 모두 파괴하고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어 역사의 증거로 삼았습니다(3절).

에돔 왕이 '왕의 대로'로 통과하지 못하게 막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힘든 행진을 계속하던 그들은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힘들고 짜증이 나자 아랏의 승리도, 가나안 땅의 약속도, 만나도 모두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5절). 그리고 나아가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의 지도력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원망하는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6절). 하지만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뱀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셨습니다(9절). 신약에서 뱀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요 3:14).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합리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는 너무도 단순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주어집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묵상 질문

장대에 매달린 뱀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히 12:2 참고)

적용 질문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¹⁰⁾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¹¹⁾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동
 는 쪽 광야 이에아바람에 진을 쳤고 ⁽¹²⁾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¹³⁾거기
 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¹⁴⁾이러므로 여
 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¹⁾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¹⁵⁾모든 골짜기의 비탈
 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¹⁶⁾거기서 ²⁾브
 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
 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¹⁷⁾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¹⁸⁾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¹⁹⁾맛다나
 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뭇에 이르렀고 ⁽²⁰⁾바뭇에서 모압 들에 있
 는 골짜기에 이르러 ³⁾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과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세렛 골짜기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였고,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였습니다. 이 지역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힘든 행진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브엘에서 출발해 비스가 산에 이르기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브엘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브엘은 본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여행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물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브엘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파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지도자들은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팠습니다(18절). 삽과 곡괭이가 아닌 규와 지팡이로 땅을 조금 팠을 뿐인데도 물이 솟아져 나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17절)'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으며,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는 표현에서 그들의 경이와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흠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고 또 행진 하였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 막았지만, 그것들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로서 그곳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기업을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 질문

이스라엘 백성은 브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를 볼 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용 질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²¹이שראל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²²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²³시혼이 이שראל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שראל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שראל을 치므로 ²⁴이שראל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압북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²⁵이שראל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²⁶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²⁷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울지어다 시혼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²⁸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안을 멸하였도다 ²⁹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³⁰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³¹이שראל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³²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아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 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 내었더라 ³³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³⁴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³⁵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본문 해설

에돔과 모압을 거쳐 아모리 족속의 경계에 도착한 모세는 아모리 왕에게 왕의 대로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22절). 그러나 아모리 왕 시혼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자로 간주하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한때 시혼 왕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왕을 굴복시키고, 큰 도성 헤스본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 왕의 군대를 괴멸시켰고, 시혼 왕이 통치하던 모든 지역 곧 남쪽 아르논에서 북쪽 압복 강에 이르기까지, 헤스본과 야셀 그리고 모든 마을을 정복했습니다(23~24절).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사해 동편에서 요단 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압복 강까지를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 통치했고, 그 경계에서 북쪽으로 갈릴리 바다 동북 지역까지의 넓은 지역을 바산 왕 옥이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혼 왕을 이기고 바산을 향해 계속 북진했습니다(30절). 그때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전을 치르려고 군대 전체를 이끌고 나왔습니다(33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34절)라는 말씀을 주시며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옥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단 강 동편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해 영적 행군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대적의 훼방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한 대적은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하며, 우리는 능히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불의의 세력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롬 8:37~38).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악한 세력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쫓대를 향해 행진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바산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힘과 용기를 더해 주니까?

우리보다 강하니

본문 민수기 22:1~8 찬송가 73장

¹⁾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²⁾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³⁾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⁴⁾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⁵⁾그가 사신을 브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⁶⁾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⁷⁾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⁸⁾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⁹⁾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¹⁰⁾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1) 히 나할 유브라데 강 2) 히 점괘

본문 해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널 준비를 하며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은 겁에 질렸습니다(3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보다 강한 아모리 족속과 싸워 그 땅을 정복했을 뿐 아니라 그 수가 자신들의 수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발락 왕은 아모리 족속처럼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력 있는 주술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계락을 짜냈습니다. 발락 왕은 유브라테 강 상류 브돌에 거하는 유명한 주술사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5~6절). 발람은 영매술을 시도하는 주술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사신들에게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시도했습니다(8절). 하나님께서는 성도뿐 아니라 이방인과 불신자에게도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찾아와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발람이 자신의 영매술로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주술 효력을 우려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복 받을 백성임을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발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복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받으셨기에(갈 3:13)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악인이 아무리 흥왕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묵상 질문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발락의 행동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습니까?(참고 창 12:3)

적용 질문

장래 일을 염려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본문 민수기 22:9~20 찬송가 420장

⁽⁹⁾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¹⁰⁾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¹¹⁾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¹²⁾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¹³⁾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¹⁴⁾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¹⁵⁾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¹⁶⁾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¹⁷⁾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¹⁸⁾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¹⁹⁾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²⁰⁾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본문 해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했다는 사실을 안 후, 그의 능력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습니다(15절). 그는 발람을 매수한다면, 발람이 하나님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발락은 발람에게 사신들을 더욱 많이 보냈고, 발람은 이중적 태도를 취하며 교활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사신들의 요구를 강하게 거절하는 것같이 하면서도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 두어 여전히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19절). 발락 왕이 제시한 보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상에 집착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자신을 높여 존귀케 해 주고, 자신의 요구를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발락 왕의 제안에 흔들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동하지 못했습니다(17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발락 왕이 제시하는 보상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아침 일찍 모압을 향해 떠나는 발람의 행동은 어리석음 그 자체였습니다(20절).

오늘날에도 발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들은 탐욕에 이끌려 오직 자신의 배만을 불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발락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유혹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누군가 많은 돈을 주면서 불의한 일을 부탁할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속에 우상이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²¹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²²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여호와와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²³나귀가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²⁴여호와와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²⁵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²⁶여호와와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²⁷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²⁸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²⁹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³⁰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본문 해설

요단 동편의 막강한 두 족속을 물리친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며 모압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막아낼 방도가 없음을 안 발락은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고용하여 그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지로 이 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으로 가는 발람의 길을 가로막으시기 위해 여호와와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본 발람의 나귀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했고 급기야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여셔서 발람의 길을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을 잠시 멈추게 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방어 울타리를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고집과 본성적인 악함으로 은혜의 섭리를 거부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발람이 떠나는 것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분별하고 점검하여 다시 주님이 가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³¹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³²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³³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³⁴발람이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³⁵여호와와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³⁶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³⁷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³⁸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³⁹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후셋에 이르러서는 ⁴⁰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⁴¹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 나귀를 향해 매질을 하던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발람은 그제야 여호와와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며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와 사자 앞에 엎드린 발람은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35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 변경 아르논에서 발람을 만난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대하며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발람의 눈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확실히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해 앞에서도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뵈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소욕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으며 그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롬 7:14~15). 주께서 성령을 보내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설명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적용 질문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의 유혹을 제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갈 5:16)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본문 민수기 23:1~12 찬송가 204장

¹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²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³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흑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⁴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⁵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⁶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⁷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아굽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⁸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⁹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¹⁰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꼬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¹¹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¹²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본문 해설

발람은 발락에게 일곱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한 번영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 발락은 그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발락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8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12절)라고 말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기도와 헌물 드림이 발락의 기도와 드림 같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며 주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묵상 질문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5, 12절)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본문 민수기 23:13~26 찬송가 393장

¹³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¹⁴소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¹⁵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볼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¹⁶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시니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¹⁷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¹⁸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 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¹⁹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²⁰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²¹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느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²²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²³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²⁴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²⁵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²⁶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본문 해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다시 일곱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람에게 말씀하시며, 이를 발락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발람이 발락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19~24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간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패역함으로 수많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다른 이방 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그들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렘 50:20). 오늘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히 9:12).

묵상 질문

발락과 발람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7)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28)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1)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 산 꼭대기에 이르니 29)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30)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31)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낫을 광야로 향하여 32)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33)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34) 감았던 자가 말하며 35)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36)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37) 그 벌여짐이 골짜기 같고 강 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 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38)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 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39)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40) 꿩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본문 해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시도가 두 번이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발람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브올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은 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에게 요구했습니다(민 23:27~28). 그곳은 바알 신을 예배하는 곳으로서 '바알 브올'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내려다보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24:1~2).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그 왕국의 존귀함을 예언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한 발람은 다시 한 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지만 그 저주는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로 바뀌고 맙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진 것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 풀이 없고 나무가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5~9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택한 백성에게 저주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된 승리(골 2:15)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의도와는 달리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진도는 더해 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이 영원히 번영하리라는 궁극적인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묵상 질문

세 번째 예언과 이전의 예언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민 24:1)

적용 질문

발람의 축복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¹⁰⁾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어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¹¹⁾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¹²⁾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¹³⁾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말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¹⁴⁾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¹⁵⁾예언하여 이르기를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¹⁶⁾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¹⁷⁾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¹⁸⁾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¹⁹⁾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²⁰⁾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 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²¹⁾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²²⁾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²³⁾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 때에 살 자가 누구이라 ⁽²⁴⁾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²⁵⁾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본문 해설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한 발락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12절)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은금을 줄지라도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13절). 발락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 발람이 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잠 1:7).

발람은 발락에게 네 번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 등의 주변국들을 모두 다 쳐부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발람의 네 번째 예언에 선언된 ‘야곱의 별’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은 과거 구약 시대의 열방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묵상 질문

발람이 자신을 가리켜 ‘눈을 감았던 자’라고 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5절)

적용 질문

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발견하고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본문 민수기 25:1~9 찬송가 268장

¹“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²라 ²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³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
 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⁴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
 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
 나리라 ⁵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⁶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
 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
 에게로 온지라 ⁷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⁸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
 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⁹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본문 해설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한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5절).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음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음행으로 인하여 내려진 염병으로 삼시간에 2천여 명이 죽음을 당한 그 때에, 시므온 지파에 속한 한 족장이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한 것입니다.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는 이를 보고 의분을 느껴 막사로 따라 들어가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고, 그제야 염병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에(출 20:5), 우리 또한 사랑을 빙자하여 불의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행동으로 인해 죄의 결과인 염병이 그치게 되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죄의 삶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는 이들에게는 참된 죄 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뿐입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며(1~3절), 그 처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용 질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한 비느하스의 행동과(6~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April 26
주일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본문 민수기 25:10~18 찬송가 342장

⁽¹⁰⁾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¹¹⁾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¹²⁾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¹³⁾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¹⁴⁾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¹⁵⁾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¹⁶⁾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¹⁷⁾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¹⁸⁾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올의 일로 염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본문 해설

바알브올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위해 열심을 냄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11절).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을 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12~13절).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고스비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과 그녀를 미디안 지휘관의 딸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합니다(16~18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타협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 속에 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비느하스의 의분은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아버지의 집을 정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요 2:13~16).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으로 징계를 결행했을 때 끔찍한 염병이 멈추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죽음이라는 끔찍한 저주의 염병을 멈추게 했습니다.

묵상 질문

나에게는 영적 순결을 위한 거룩한 질투가 있습니까?

적용 질문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를 계수하라(두 번째 인구 조사)

본문 민수기 26:1~50 찬송가 347장

“염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이십 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2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3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 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4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5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6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사만 삼천칠백삼십 명이었더라 7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8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단단과 아비람이라 이 단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그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9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아백오십 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0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11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12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13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14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15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이만 이천이백 명이었더라 16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17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수니에게서 난 수니 종족과 18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19아룻에게서 난 아룻 종족과 아엘리에게서 난 아엘리 종족이라 20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사만 오백 명이었더라 21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22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23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24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칠만 육천오백 명이었더라 25잇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26아삽에게서 난 아삽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27이는 잇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육만 사천삼백 명이었더라 28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알르엘에게서 난 알르엘 종족이라 29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육만 오백 명이었더라 30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31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32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세셀에게서 난 이세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33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34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35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36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오만 이천칠백 명이었더라 37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38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39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40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삼만 이천오백 명이라 41이는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던라 42벤jamin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43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44스부임에게서 난 스부임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45벨라의 아들들은 46아룻과 나야만이라 아룻에게서 아룻 종족과 나야만에게서 나야만 종족이 났으니 47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벤jamin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사만 오천육백 명이었던라 48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49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50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육만 사천삼백 명이었던라 51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52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53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54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오만 삼천사백 명이었던라 55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56에셀에게서 난 에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57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사만 오천사백 명이었던라

1) 창 46:10 출 6:15, 여모델 2) 대상 4:24, 아림 3) 창 46:10, 소할 4) 창 46:16, 시몬 5) 창 46:16, 에스본 6) 창 46:16, 아로디 7) 창 46:13, 욕 8) 대상 7:20, 베헤트 9) 대상 8:1, 아하라, 창 46:21, 예히 10) 창 46:21, 물림과 흠뿔 11) 대상 8:3, 이달 12) 창 46:23, 후심

본문 해설

염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라고 명령 하십니다(1~2절). 이것은 시내 광야에서의 1차 인구 조사(민 1장)에 이어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두 번째 인구 조사였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의 대상이 출애굽 세대였다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대상은 광야 세대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수많은 반역으로 얼룩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초기에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후기에는 바알브올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인구 조사는 가나안 점령을 위한 군대 조직 및 땅 분할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파별로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하니, 도합 601,730명으로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1,82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의 전체 인구 수가 출애굽 첫 세대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 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인구 조사는 광야의 옛 사람의 상태로는 즉, 거둑남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 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묵상 질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나의 옛 사람의 습관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땅을 나눠 주어

본문 민수기 26:51~65 찬송가 491장

⁵¹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육십만 천칠백삼십 명이었더라 ⁵²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⁵³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⁵⁴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⁵⁵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⁵⁶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⁵⁷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⁵⁸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립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⁵⁹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⁶⁰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⁶¹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⁶²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이만 삼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⁶³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⁶⁴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⁶⁵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계수된 인구 수(601,730명)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53절).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55절). 우리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나눈다는 것이 가나안 땅 점령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창 15:7, 16, 18).

하나님께서서는 수에 따른 기업 분배를 통해 땅을 나누는 데 있어 인간의 탐욕을 배제시키셨습니다(54절). 또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55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흠어져 살면서 제사를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레위 지파를 인구 조사한 목적은 땅 분배가 아닌, 레위인이 흠어져 거주하게 될 48개 성읍의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민 35:1~8).

시내 광야에서 실시한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계수된 인원 중 단 한 사람도 두 번째 인구 조사 때 계수되지 못했습니다(64~65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하셨기에(민 14:30) 하나님의 말씀대로 패역한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오로지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첫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

나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유업이 있음이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약속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본문 해설

본장에는 땅 분배 원칙으로 인해 생겨난 상속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므낫세에 속한 슬로브핫은 아들 없이 다섯 명의 딸들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성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상속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1절).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고라 자손의 반역에 가담해 하나님의 징계로 죽지 않았다는 것(3절)을 말했습니다. 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슬로브핫 딸들의 청원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었고(5절) 하나님께서는 슬로브핫 딸들의 청원이 정당하다며 그들이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6절). 아들 없이 딸만 남은 경우 당연히 딸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신 것입니다(7절).

8절 이후의 말씀은 상속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위임되어 내려가지를 보여줍니다. 아들이 없으면 기업의 땅에 대한 우선권이 딸들에게 있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의 땅은 형제들에게(9절), 형제들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10절),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의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11절). 이러한 이유는 레위기 25:23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거나 팔거나 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성 상속법에 대한 본문의 율례는 다시금 36장에서 보 완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법의 계속적인 보완과 제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이 단지 형식에 얽매이는 제도적 틀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묵상 질문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안수하여 위탁하되

본문 민수기 27:12~23 찬송가 390장

¹²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¹³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¹⁴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¹⁴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 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이니라 ¹⁵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¹⁶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니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¹⁷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¹⁸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¹⁹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²⁰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²¹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써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²²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²³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본문 해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12절). 그리고 모세에게 그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하십니다(13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여호와께 불평했을 때, 그가 여호와 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렇게 갈망했고 사모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고 그의 유고 시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주시도록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16~17절). 백성들의 안녕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하셨습니다(18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신 이유는 그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권위가 이양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여호수아를 임명했고, 여호수아는 그 시간 이후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21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특권을 여호수아가 모두 승계하는 것을 분명히 하심으로(23절), 여호수아를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세대는 세대를 이어가고 사람도 사람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또 다른 지도자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시대 동안 쓰임을 받고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나는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나의 영적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4월 5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 현대의 역사가와 과학자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무덤이 발견된다면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 같습니까?

※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 말씀으로

먼저 마태복음 28:1~10을 읽으십시오.

1.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간 시각은 언제입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직후, 바로 무덤으로 가지 않았습니까?(눅 23:56 참조)

2. 안식 후 첫날과 오늘날의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고, 주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를 예고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가 그대로 실현된 날입니다. 이런 뜻에서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행 20:7 고전 16:2)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하여 삼위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3.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2~4절)

4.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천사는 그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까?(5~7절)

4월 5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5.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8절)

6. 여인들은 천사에게 들은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8~9절)

7.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이르신 말씀은 무엇입니까?(10절)

8.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옮기는 광경을 목격했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 근처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다는 기사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요 20:14~17)에만 나옵니다. 이 보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갔다거나 딴 곳으로 옮겨놓았다는 모든 소문이 거짓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의 근거를 빈 무덤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어야말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 세상으로

1.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어느 곳에서 만나 주십니까?
2.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가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4월 12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피조물과 구별된 창조주로서 스스로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레 11:44~45).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은 소명의 핵심은 '거룩'이었습니다.

레 11:44~45 _____

■ 말씀으로

먼저 민수기 20:1~13을 읽으십시오.

1. 백성이 모세와 다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2~3절)

본문 민수기 20:1~13 찬송가 32장, 288장

2. 3절에서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했겠다는 말은 어떤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까?(민수기 16장 참고)

3. 백성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르며 누구와 다투고 있습니까?(4~5절, 13절)

4.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 불평하는 회중에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6절)

5. 회중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8절)

4월 12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6. 여호와와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습니까?(10~11절)

7. 모세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12절)

8. 므리바 물을 통해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13절)

9.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음으로 모세와 다투었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체로(빌 2:6)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멸시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 세상으로

1.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4월 19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여호와와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주술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사주를 받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칼을 들고서 길을 막고 있는 광경을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나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귀는 자신과 주인인 발람의 위기를 감지하고 가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호와와 사자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귀만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와 사자의 칼을 피하기 위해 담에 바짝 붙어 가다가 주인인 발람의 발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서 나귀를 때렸고, 하나님은 그 순간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 하나님이 침묵인 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하도록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말씀으로

먼저 민수기 22:21~30을 읽으십시오.

1. 발람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22절)

2. 여호와와 사자는 발람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2, 24, 26절)

3. 나귀는 여호와와 사자를 몇 번 보았습니까?(23, 25, 27절) 그리고 발람은 여호와와 사자를 몇 번 보았습니까?

4월 19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4.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반응하자, 발람은 나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28절)

5. 하나님은 자신의 경고의 말씀을 발람에게 알리시기 위해 어떠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29~30절)

하나님은 자신의 경고를 알리기 위해 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짐승을 통해 경고하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떠나는 발람의 길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에는 나귀를 통해 발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6.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자신의 사자와 짐승인 나귀의 입을 사용하여 대적자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절정을 드러냈습니다. 짐승이 말을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 세상으로

1.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 주신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2. 오늘날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이나 현상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4월 26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내 노를 돌이켜서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성적인 범죄와 함께 바알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선포가 마쳐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에는 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모두 회막 입구에 모여서 회개하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인 시므리가 버젓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을 품고 그 둘을 죽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 공동체를 파괴하는 한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느하스는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행동에 임했습니다. 이 행동은 옳은 행동이었습니까?

■ 말씀으로

먼저 민수기 25:10~18을 읽으십시오.

1. 비느하스는 누구의 직계 자손이었습니까?(11절)

2. 비느하스는 누구의 분노를 자신의 분노로 삼았습니까?(11절)

3.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습니까?(12~13절)

4. 비느하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들을 누구입니까?(14~15절)

4월 26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 조사 때 59,300명(민 1:23)이었던 인구 수가 2차 인구 조사 때 22,200명(민 26:14)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이토록 명확하게 치러집니다.

5. 하나님이 미디안인들을 대적으로 여겨 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8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로 유혹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으로 그들의 손을 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자비와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6.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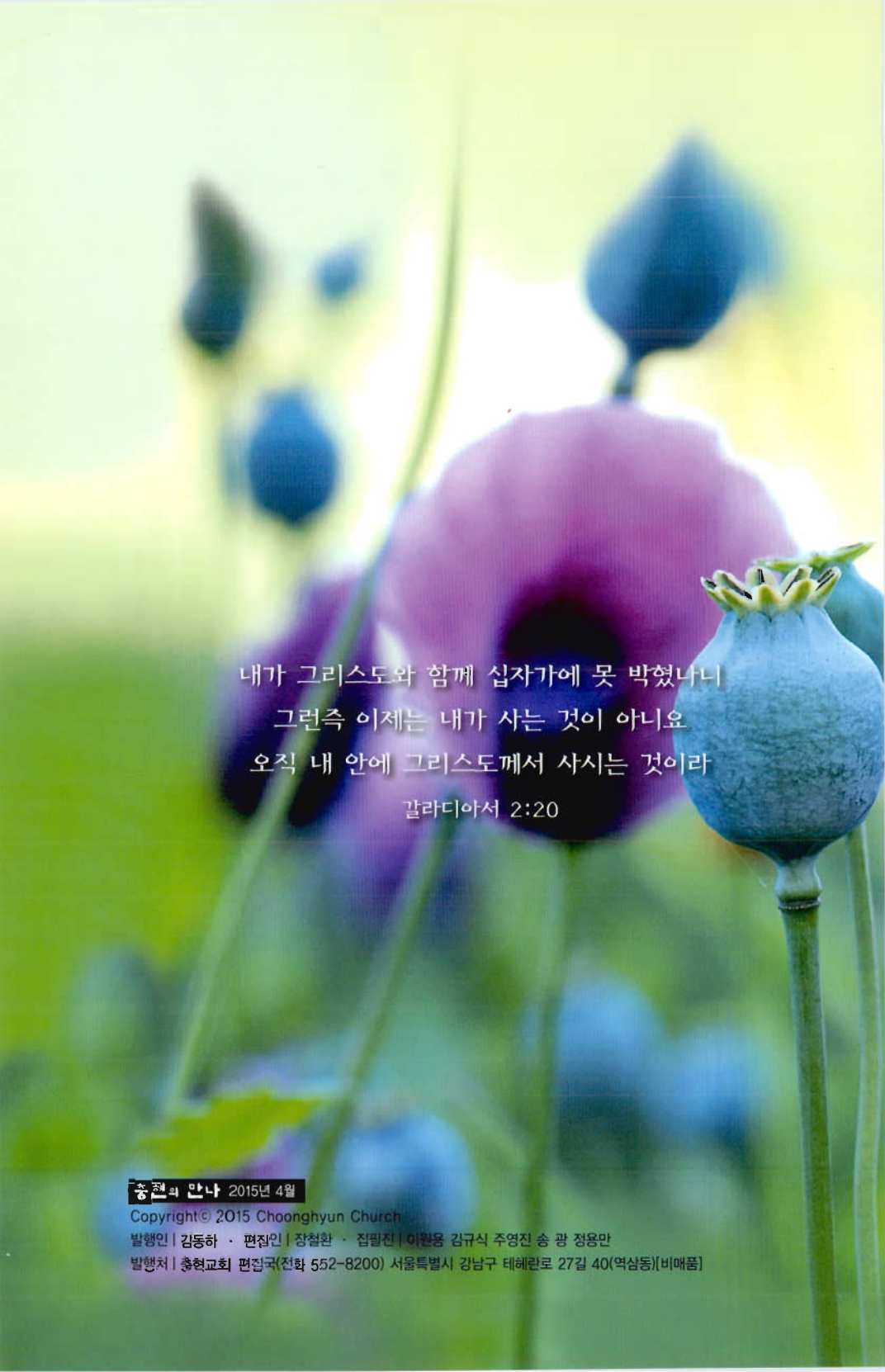
■ 십자가로

범죄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끝없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한 사람 비느하스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 세상으로

1.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진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2. 나의 회개와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를 거두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교회의 만나 2015년 4월

Copyright© 2015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장철환 · 집필진 | 이원웅 김규식 주영진 송 광 정용만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품]